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14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감귤 본격 보급-9면(24.3.4.)	과수연구과	한국영농신문
○	노지감귤 이른 발아 서리피해 주의-3면(24.3.6.)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신문
○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10면(24.3.8.)	기술지원조정과	원예산업신문
○	[기고] 비료 먹일 땐 과유불급을 되새 킵시다-14면(김유경)	친환경연구과	뉴제주일보
○	제주감귤 일본 수출 중단 7년 만에 재개 되나 ‘관심’ -6면	-	제주매일
○	월동채소 재배지 방풍망 지원 서귀포시, 오는 19일까지 접수-3면	-	한라일보
○	도시·농촌이 행복한 삶 꿈꾸는 농업인-12면	-	제민일보

(한국영농신문: 2024년 3월 4일)

○ 제주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감귤 본격 보급-9면

제주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감귤 본격 보급

가을향·우리향·달코미 등
3품 종 올해 175ha 면적에 보급

제주특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에서 개발한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제주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연내 출하형 만감류 품종 개발에 착수해 2021년 '가을향', 2022년 '우리향'과 '달코미'를 각각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했으며, '우리향', '달코미'는 지난해 21개 도내 종묘업체와 통상실시를 통해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보급되는 규모는 '가을향' 2,267주(1.3ha분), '우리향' 14,445주(8.6ha분), '달코미' 12,767주(7.6ha분) 총 3개 품종 29,479주(17.5ha분)이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보급되는 3개 품종이 연내 수확형으로 껍질 벗기기가 쉽고 당산비가 높은 고당도 품종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품종 감귤 묘목을 구입하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묘목 생산 업체를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3.4. 한국영농신문 9면

(서귀포신문: 2024년 3월 6일)

○ 노지감귤 이른 발아 서리피해 주의-3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서리피해 주의

평년대비 8일 가량 빨라져
꽃봉오리 등 서리피해 주의
비가림 자연온도 유지 도움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리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8.5도, 서귀포시 9.2도로 전·평년대비 1.1~2.4도 높았고, 강수량도 제주시 280.8mm, 서귀포시 191.4mm로 전·평년대비 52.9~149.1mm 많았다. 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기를 예측한 결과 △제주시는 3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대비 8일 빠르며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년 대비 2일, 평년대비 8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한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창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고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리 상습 피해지역의 노지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할 것을 도 농업기술원은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서리피해가 발생하면 요소 0.2%액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해충 조기 발생 및 확산이 예상되므로 굴응애, 더듬이병, 궤양병 등의 예방을 강화하고 사전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광철 제주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팀장은 "조기발아한 어린 눈이 저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후변화로 감귤 생육주기가 변화하고 있으니 기상과 과원 상황에 알맞게 농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3.6. 서귀포신문 3면

(원예산업신문: 2024년 3월 8일)

○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10면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

전년대비 2~5일, 평년대비 8일 빨라져 ... 서리피해 주의

겨울철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8.5℃, 서귀포시 9.2℃로 전·평년대비 1.1~2.4℃ 높았고, 강수량도 제주시 280.8mm, 서귀포시 191.4mm로 전·평년대비 52.9~149.1mm 많았다.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가 예측 결과, △제주시는 3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대비 8일 빠르며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년 대비 2일, 평년대비 8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

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측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고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서리 상습 피해지역의 노지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한다.

서리피해가 발생하면 요소 0.2%액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회복에 힘써야 한다.

또한 병해충 조기 발생 및 확산이 예상



감귤나무

되므로 꿀응애, 더듬이병, 궂암병 등의 예방을 강화하고 사전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8.

/권성환 blue 원예산업신문 10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4일)

○ [기고] 비료 먹일 땐 과유불급을 되새김시다-14면

비료 먹일 땐 과유불급을 되새김시다

한해 농사가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농사를 앞두고 과유불급이란 말이 생각난다. 농업인들은 흔히 농사를 지으며 '비료는 맥이라 맥여!'라는 말을 한다. 비료를 많이 주면 수확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많이 먹는다고 좋을까? 무엇이든 적당해야 좋다. 농사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인은 농작물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 토양에 비료를 공급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만큼 주는가이다.

작물마다 비료 주는 양과 시기를 정해 놓은 시비기준이 있지만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토양에 남은 비료 성분은 비가 오면 녹아서 지하수와 바다로 흘러들어 가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양분 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공급하는 토양검정 시비가 필요하다.

토양검정시비를 하면 밭에 남아있는 양분을 이용할 수 있어 비료 구입 비용



김유경

제주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을 줄일 수 있고 양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양분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토양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친환경 농업기술로 보면 된다.

지나친 비료 사용은 토양 양분 불균형을 초래해 생리장애 발생과 병해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청정 제주의 토양과 지하수를 병들게 한다. 농업기술원이 토양검정시비를 현장 실증한 결과 시비량을 20~50% 정도 줄일 수 있고 농작물의 수량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이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침과 부족함 모두 못하다는 뜻이다. 토양검정시비는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균3.14.미**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3월 14일)

○ 제주감귤 일본 수출 중단 7년 만에 재개되나 ‘관심’ -6면

제주감귤 일본 수출 중단 7년 만에 재개되나 ‘관심’

한국감귤수출연합, 日 박람회서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홍보
감귤 재배농가 육성-일본 바이어 발굴 및 시범수출 등도 추진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제주 감귤의 일본 수출 재개가 추진된다.

한국감귤수출연합은 올해 제주농협과 함께 일본 수출 감귤 재배농가 육성, 일본 바이어 발굴 및 시범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첫 시작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FOOD EX JAPAN 2024 박람회에 참여해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및 신품종 미니향을 일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제주 감귤을 비롯해 감귤 가공품에 대해서도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매일 6 주요 배화점의 식품매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통 시장 조사를 실시해 감귤과 만감류의 유통 가격, 포장 형태 등 향후 일본 수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제주 감귤은 2000년대 일본 도매시장 직상장, 냉동감귤 수출 등 2000t이 넘는 감귤을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으나 수출단가의 저하, 일본 소비자의 자국산 감귤 선호 등 다각적인 요인으로 인해 2017년 10t 수출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송창구 한국감귤수출연합 대표이사(제주감귤농협 조합장)는 “일본에 한류 바람이 일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지금이 일본 수출 재개의 적기라 판단한다”면서 “고품질 감귤을 일본에 수출해 일본 소비자들에게 제주 감귤이



일본 도쿄 박람회에서 만감류 홍보 모습.

일본 감귤에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귤수출연합은 지난해 9월 홍콩 AFL(아시아 신선농산물 박람회, ASIA FRUIT LOGISTICA) 박람회에서 홍콩, 동남아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해 홍콩,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 등에 지난해 652t의 제주 감귤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제주 감귤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총 3920t으로 전년 3260t 대비 20.2%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455만 달러로 전년 344만 달러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철 기자

(한라일보: 2024년 3월 14일)

○ 월동채소 재배지 방풍망 지원 서귀포시, 오는 19일까지 접수-3면

월동채소 재배지 방풍망 지원 서귀포시, 오는 19일까지 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6000만원을 투입해 ‘밭작물 재해 예방용 방풍망 피복 재배 지원 사업’을 벌인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월동채소(월동무 제외) 재배 농가에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방풍망 피복으로 태풍이나 집중 호우 때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후 일시 재파종을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농작물 출하 시기 분산에 기여하고 반복적인 재해로 인한 재파종, 대파로 증대되는 경영비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농가당 최대 1ha (30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3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대상 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으로 53농가에 1203를 (총 59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사업 시행 결과 태풍 등에 의한 어린썩, 종자 유실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제민일보: 2024년 3월 14일)

○ 도시·농촌이 행복한 삶 꿈꾸는 농업인-12면

도시·농촌이 행복한 삶 꿈꾸는 농업인

정보화농업인 중앙연합회 총회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2024년 차세대 농림사업 시스템 Agrix 교육 및 (재)한국정보화농업인 중앙연합회 (이하 한정농 회장 하창준) 총회’에 제주도 정보화농업인 회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 정보화농업인 회원들은 한정농의 발전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해 올해 진행되는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전 회원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특강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3.14. 제민일보 12면 정보화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지e지) 구축 사업 교육으로 한국정보화농업인들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05년 도입, 2023년 19년 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며, 올 연말까지 전국에 1400여대의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차세대 시스템(키오스크)이 구축되면 농업경영체 신청 및 발급 등을 비롯해 여러 보조사업 서류처리를 일괄로 제출할 수 있어 농업인의 시간 절감과 공무원 업무효율개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 및 농업 행정 디지털 전환 체

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차세대 시스템 교육 과정에서 농업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용법 등에 관해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자는 질의한 부분을 검토해 시스템을 쉽고, 편리한 기능으로 보강하겠다고 응답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키오스크는 농업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한 농업인은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배근휘 도민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